

가정상담

2023 | 03
통권 475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 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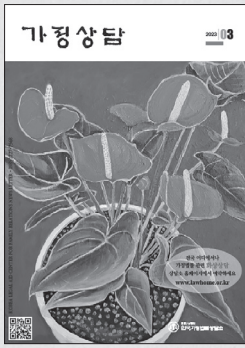
본소의 2023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3일 열려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 등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5면)



본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월 10일에는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신용회복교육이(▲) 있었고, 24일과 28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준비교육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5, 36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 맑고 깨끗한 우리사회의 초석!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2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영어 법률상담

21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소송구조 분석 - 파산 면책

30 • 가정폭력상담실

31 • 어떻게 할까요

32 • 임상실습 소감문

34 • 좋은 책

작은 땅의 야수들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 특집기사가 넘쳐 기획기사 및 인터넷 상담은 쉬어 갑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노년이혼의 가파른 증가와 가정 문제에도 깊은 영향 미쳐

국가가 가족과 개인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노년이혼을 의미하는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처음 회자 되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1999년, 20세기 말의 일입니다. 70대 여성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에서 “해로하시라”며 여성의 청구를 기각했기에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노년이혼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수사적인 표현도 적절하지 않았고, 단지 노년의 삶이라는 이유로 소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 전에 “해로”라는 표현을 썼던 재판부를 향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당시 저도 언론의 요청으로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로”라는 아름다운 말이 참으로 폭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다행히 당시 이혼소송을 했던 7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상담소의 상담통계는 이 같은 노년이혼의 증가가 우리 사회 가정의 변화하는 양상을 대표하는 뚜렷한 징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이혼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80대, 90대의 이혼상담도

드문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황혼이혼’이니 ‘해로하리라’는 판결이 문제가 되던 시절에서 겨우 한 세대 정도가 지난 시간이지만 가족관계나 가정문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의 변화는 이처럼 빠르고 급격하여 개인들이 그 변화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90대 내담자가 이혼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을 때, 내심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 역시 익숙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노년층의 이혼상담 비율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인율과 이혼율이 더불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던 때여서 더욱 특별하게 보입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상담 비율은 2002년 5.8%에서 2012년 11.4%, 2022년 24.3%로 증가하였고,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는 2002년 11.6%에서 2012년 21.0%, 2022년 50.1%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2.1배 남성은 2.4배 증가한 것이고 20년 전에 비하면 여성은 4.2배, 남성은 4.3배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이혼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찾은 남성의 과반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고 이중 최고령자는 88세였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40대 다음으로 60대가 많았고 최고령자는 91세였습니다. 노년층의 이혼사유도 폭력과 경제갈등이 가장 많고 이로 인한 불안과 빈곤 그리고 소외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갈등 사유는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결혼 기간 내내 있었던 문제들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화해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성 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초부터 때리던 남편이 나이 들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재산이 없으니 자녀들도 외면하고’ ‘이제라도 내 몫을 찾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그리고 남성 노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난 아내를 더 붙들고 있을 수 없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벌어 먹고사느라

애썼는데 돈을 못 버니 구박이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이제 말년에 들어선 인생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그리고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상담자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게 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나이 들었는데 그냥 살지’라고 쉽게 이야기 하지만 오죽하면 그 나이에 이혼을 결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 답답합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 하루라도 제대로,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보겠다는 이들의 바람을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의 의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의식의 깨어남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국민의 의식은 성장하고 깨어나는데 가족, 가정을 바라보는 국가의 가족정책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책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노년이혼의 증가는 가족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여러 측면에서 보다 나은 개인적 삶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의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즉 국민 의식의 개혁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과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70년 역사를 지닌 상담소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과 상담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재상담입니다. 작년 한 해 이혼 초상담이 2,093건, 재상담이 1,923건이라는 통계는 상담소를 다시 찾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 초,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상담소를 찾았던 내담자가 노년기에 자녀를 의지해 평생 해결되지 않는 부부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재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소가 우리 사회의 가정과 더불어 내담자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에서 함께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변화하는 한국 사회, 급변하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상담소의 오늘과 앞에 놓인 과제를 마음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이혼 초상담 2,093건, 재상담 1,923건, 재방문 건수 거의 비슷
결혼 초 자녀 업고 찾아왔다가 노년기에 자녀 의지해 다시 찾아와

노년층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이혼상담 최고령자 남성 88세, 여성 91세
이혼상담 남성 내담자 과반수 이상이 60대 이상
여성 내담자도 40대 다음으로 60대가 많아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61,562건을 상담하였다.

61,562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53,239건, 화해조정 6,802건, 소장 등 서류작성 518건, 소송구조 1,003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8,674건, 전화상담 41,511건, 인터넷상담 1,210건, 서신상담 2건, 지상상담 10건, 순회상담 155건이었다.

면접상담은 총 18,674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7,521건으로 면접상담의 93.8%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1,012건(5.4%), 형사사건이 141건(0.8%)이었다.

이혼상담 분석

총 4,016건,
여성내담자 3,162명(78.7%)
남성내담자 854명(21.3%)

상담소에서는 총 4,016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여성내담자는 3,162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854명이었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평생을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 시누이, 시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웠다. 현재 내 명의로 된 임대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겨우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남편에게 또 심하게 맞아 병원에 두 달간 다녔다. 예전에 맞아서 척추가 부러져 잘 걷지 못하는데 남편이 비틀거리며 걷는 내 모습이 보기 싫다며 뒤에서 발로 나를 차버렸다. 애들이 마음 아플까봐 애들에게 연락도 못하겠다. 애들 어릴 때에도 남편에게 맞아 상담소에 방문했었다. 애들이 이제는 제발 이혼하고 엄마 편히 살라고 한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는 신혼 초부터 내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아내는 미혼인 딸 집에 나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살면서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올 뿐이다.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얼마 전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해왔다. 재산도 전부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 같이 살지도 않기에 굳이 이혼할 필요도 없는데 아마도 자녀들의 코치를 받고 있는 듯하다. 아내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나도 지쳐서 이혼할까 고민 중이다.

이혼 초상담 2,093건, 재상담 1,923건,
재방문 건수 거의 비슷

결혼 초 자녀 업고 찾아왔다가
노년기에 자녀 의지해 다시 찾아와

여성은 40대(30.4%),
남성은 60대 이상(50.1%)이 가장 많아

전체 여성 이혼상담 사유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 2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순)
- 3위 남편의 가출

전체 남성 이혼상담 사유

- 1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 2위 아내의 가출
-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이혼상담 여성 내담자 과반수 이상(53.9%)이

남편 폭력 호소해

이혼상담 남성 48.4% 장기별거, 아내 가출 호소해
나라 안팎 경제 위기, 가정에도 그대로 영향 끼쳐
실직, 폐업, 주가폭락, 이자증가 등으로 경제갈등 고조,
혼인파탄으로 이어져

노년층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60대 이상 여성

(2002년 5.8%→2012년 11.4%→2022년 24.3%)

60대 이상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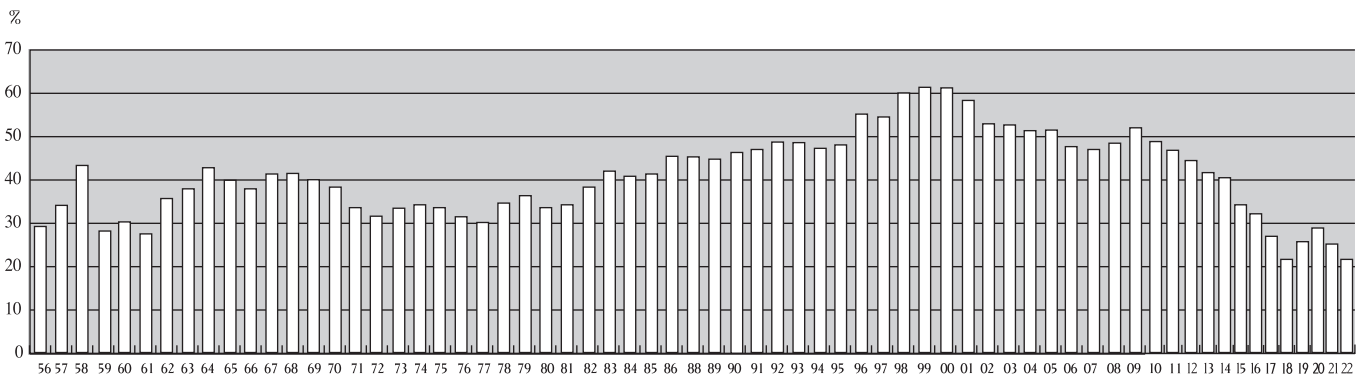
(2002년 11.6%→2012년 21.0%→2022년 50.1%)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2.1배, 남성은 2.4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2배, 남성은 4.3배 증가)

이혼상담 최고령자 남성 88세, 여성 91세

이혼상담 남성 내담자 과반수 이상이 60대 이상
여성 내담자도 40대 다음으로 60대가 많아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노년층에서도 폭력과 경제갈등 여전해,
그로 인한 불안, 빈곤, 소외 심각해

노년 여성

젊어서 폭행하던 남편, 나이 들어서도 안 고쳐
재산 없는 엄마, 자녀들로부터도 외면 당해
이제는 내 몫 받아 마음대로 살고 싶어

노년 남성

나 떠난 아내 더 이상은 붙들고 있을 이유 없어
평생 벌어 먹었는데 돈 못 벌자 외면 당해
무거웠던 어깨의 짐, 이제라도 내려놓고 싶어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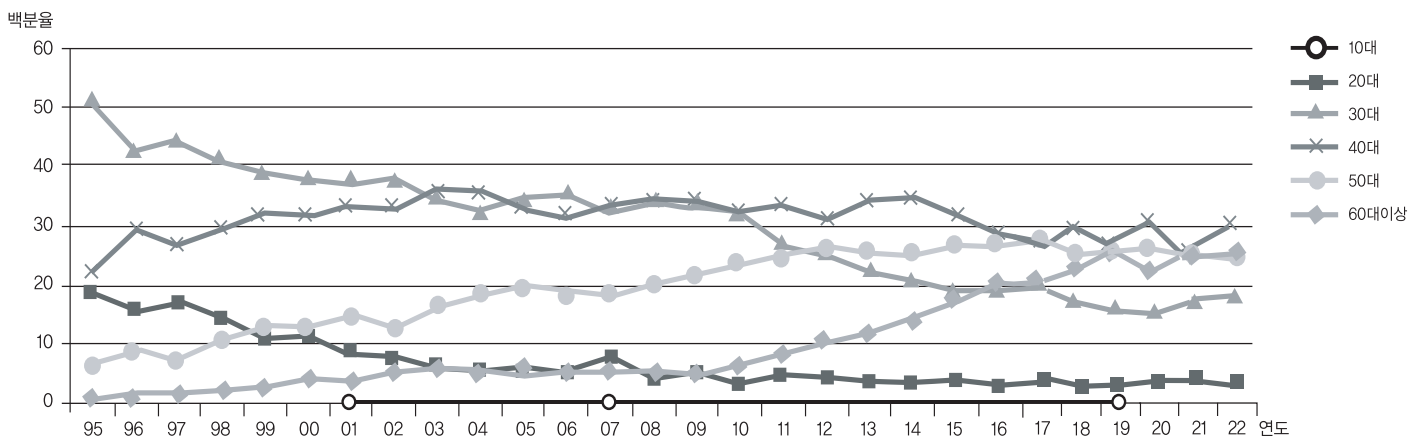
여성은 40대(962명, 30.4%), 60대 이상(768명, 24.3%),
50대(736명, 23.3%), 30대(587명, 18.6%), 20대(108명,
3.4%)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428명, 50.1%), 50대
(202명, 23.7%), 40대(143명, 16.7%), 30대(73명, 8.5%),

20대(7명, 0.8%)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2년에는 30대(30대 38.2%,
40대 33.3%, 50대 14.1%, 20대 8.2%, 60대 이상 5.8%)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20대 순
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40대(40대 31.5%, 50대
26.5%, 30대 25.6%, 60대 이상 11.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 3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그런데 2022년에는 40대, 60대 이상, 50대,
30대(40대 30.4%, 60대 이상 24.3%, 50대 23.3%, 30대
18.6%)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인 60
대 이상이 30대, 50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년 전
과 비교해 볼 때 30대는 38.2%에서 18.6%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5.8%에서 24.3%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 역시 20년 전인 2002년에는 30대(30대 38.1%, 40
대 33.0%, 50대 12.4%, 60대 이상 11.6%)의 비율이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40대(40대 28.5%, 30대 26.3%,
50대 22.8%, 60대 이상 21.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은 3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2002년과 비교
해 볼 때 30대와 40대의 순위만 바뀌었다. 그런데 2022년
에는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60대 이상 50.1%, 50
대 23.7%, 40대 16.7%, 30대 8.5%)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혼 - 여성 연도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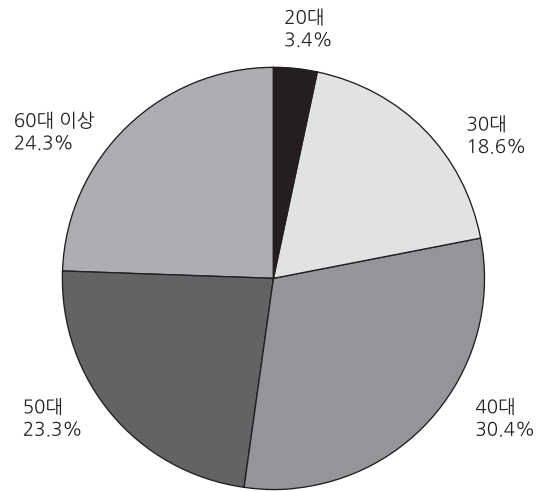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1.6%에서 50.1%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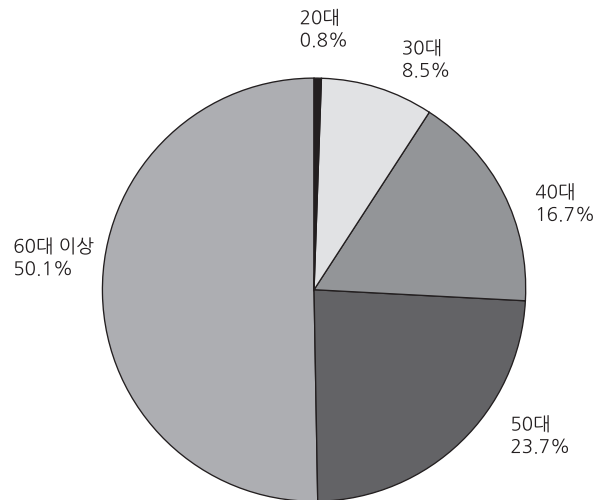
남편은 운전을 한다. 혼인 생활 중 폭언과 기물파손을 물론이고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남편은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다른 여자들도 맞고 산다며 오히려 신고한 아이들과 나를 비난할 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내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요구했더니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더 요구하면 내 직장에 와서 망신을 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 남성 60대 이상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아내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다.아내는 장모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같이 하겠다고 의논도 없이 처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렇게 따로 지내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연락도 주고 받았으나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없다. 나는 이혼을 원하고 아이를 통해 들려오는 말로는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 문제이다. 헤어질 때까지도 이런 문제로 다투야 하니 참 답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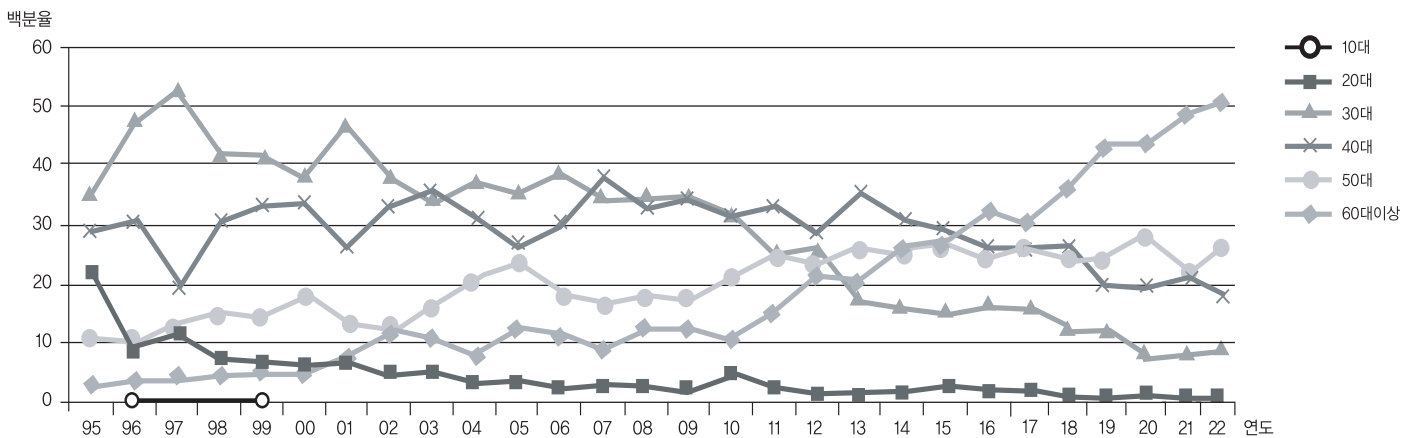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이혼 - 남성 연도별 연령별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162건)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민법 제840조 3호)(53.9%, 1,704건)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빚, 생활무능력 등이 우선 순위임)'(6호)(28.1%, 887건)
- 3위 '남편의 가출'(2호)(10.3%, 32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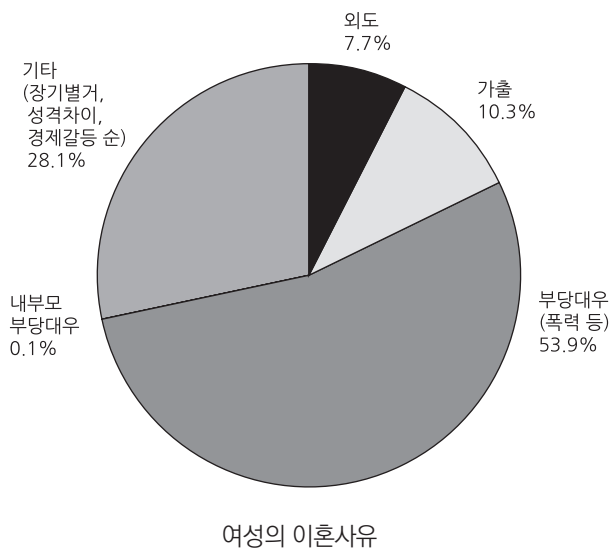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854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빚 등이 우선 순위임)'(6호)(59.7%, 510건)
- 2위 '아내의 가출'(2호)(26.7%, 228건)
- 3위 '아내의 부당대우'(3호)(7.5%, 64건)

여성의 53.9%가 남편 폭력 호소해

남성의 48.4%가 장기별거, 아내 가출 호소해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꼽은 경우가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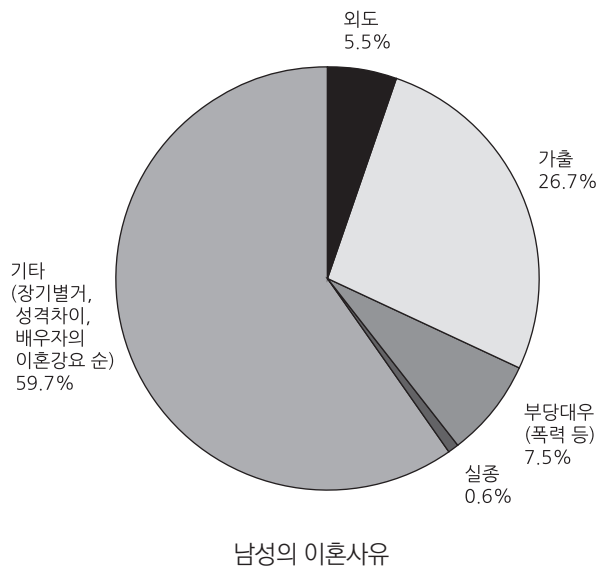


(1,70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1%, 887건), 2호 '남편의 가출'(10.3%, 326건) 순이었다.

이혼상담을 한 여성의 53.9%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들은 2020년 48.3%, 2021년 48.8%에서 2022년 53.9%로 더욱 증가하였다. 98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에서 남편의 아내 폭력이 줄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남성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꼽은 경우가 59.7%(5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26.7%, 228건), 3호 '아내의 부당한 대우'(7.5%, 64건) 순이었다. 한편, 1순위인 기타 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상담을 한 남성의 48.4%(전체 854건 중 장기별거



185건, 아내 가출 228건)가 별거나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고, 법적으로만 혼인관계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호소해왔다. 특히 2호 사유인 '아내의 가출'은 2019년 15.8%, 2020년 23.0%, 2021년 26.6%, 2022년 26.7%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가출이나 별거를 사유로 제시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 쌍방의 외도나 불성실한 생활, 과도한 빚, 폭행 등 다른 문제들이 먼저 갈등의 요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부부 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일단 집을 나간 경우가 많아 먼저 선행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많았다.

● 여성 30대 이혼상담 사례(폭력) (내담자 여성 30대 / 상대자 남성 40대)

결혼한 지 10년되었고 딸이 한 명 있다. 어제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투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내 목을 졸랐다.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폭언과 기물파손은 수시로 있었다. 목을 조른 적은 처음이었고, 너무 무서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가 신고해 경찰이 집에 출동하였다. 현재 아이와 함께 친구 집에 피신해 있다. 살고 있는 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준 것이다. 이혼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

● 남성 80대 이혼상담 사례(별거) (내담자 남성 80대 / 상대자 여성 70대)

아내와 35년 전부터 떨어져 살았다. 과거 나를 폭행으로 고소해서 벌금을 낸 적도 몇 번 있다. 그러나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도 따로 사는데 아내가 며칠에 한번씩 찾아 와서 내게 행패를 부린다. 자존심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는 못하겠다. 자녀들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내

도 임대아파트를 얻었다고 한다. 내 명의 임대아파트를 갱신하러 갔더니 이혼접수증을 가져 오라고 한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이 많아

6호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887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3.0%(20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4.3%(127건), '경제갈등' 11.2%(99건), '폭언' 6.1%(54건), '빚' 4.4%(39건), '생활 무능력' 4.1%(36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3.7%(33건), '도박' 2.8%(25건), '의처증' 2.1%(19건), '알콜중독' 1.9%(17건), '불신' 1.8%(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510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6.3%(18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7.8%(91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9.2%(47건), '경제갈등' 5.7%(29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2.9%(15건), '빚' 2.0%(10건), '결혼조건속임'·'의부증' 각 1.8%(각 9건), '정신병'·'무시/모욕'·'폭언' 각 1.4%(각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여성 23.0%, 남성 36.3%), '성격차이'(여성 14.3%, 남성 17.8%)를 이유로 한 상담이 많았다.

장기별거 비율,
여성 2002년 3.4%, 2012년 10.5%, 2022년 23.0%
남성 2002년 3.8%, 2012년 14.3%, 2022년 36.3%로
크게 증가
별거 전 다양한 선행 원인 존재
정부지원 혜택 받기 위해
이혼 절차 진행하는 경우 많아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2년 3.4%, 2012년 10.5%, 2022년 23.0%로, 남성은 2002년 3.8%, 2012년 14.3%, 2022년 36.3%로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별거의 원인은 다양하였다. 별거 전 경제갈등, 외도, 폭력과 같이 뚜렷한 원인이 선행된 경우도 있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애정이 상실되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별거 초기에는 자녀문제나 경제문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이유들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법적으로만 남아 있는 부부관계를 지속시킬 수는 없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한편, 오랜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수급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러한 곤란을 해결하고자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해 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미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재판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담소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여성)

15년 전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하였다. 준비 없이 맨 몸으로 나오는 바람에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내내 생활고를 겪었다.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혼이 안 되어 있어 어렵다고 하였다. 그동안 남편이 나에 대한 가출신고를 2번 하였는데 자신은 나를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오래 되어 증거도 없다. 이처럼 오래 떨어져 있었으면 이혼이 되는가?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혼인하고 상대방과 5~6년 정도 같이 살았다.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서도 남남처럼 지냈다. 이혼 말이 나오던

중 어느날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몇 번 찾아와 이혼해 달라 하였는데 그 때는 내가 껄뻐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나는 매우 어렵게 지냈고, 고시원에 혼자 거주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수급자로 지정 받으려고 했더니 배우자가 있어 어렵다고 하였다.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은?

실직, 폐업, 추가폭락, 이자증가 등으로 경제갈등 고조, 혼인파탄으로 이어져

빚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후 파산상담까지 진행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6호사유 중 여성 11.2%, 남성 5.7%)과 ‘빚’(6호사유 중 여성 4.4%, 남성 2.0%)을 이유로 한 상담비율이 높았다. 또한 ‘빚’을 이유로 한 상담비율은 남녀 모두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여성 2.9%→4.4%, 남성 0.5%→2.0%). 나라 안팎 경제 위기가 가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는데 상담을 통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많았고 이러한 어려움은 부부간 경제갈등으로 이어져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점점 해소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실직과 폐업, 추가폭락, 부채에 대한 이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 혼인 파탄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상담 후 파산상담까지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파산상담의 비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3.9%로 증가하였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남편과 경제갈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 남편이 배달대행업을 하는데 이제껏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현재

별거 중인데 지금도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수입이 많지는 않으나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사이 남편은 다시 잘 해 보자고 하는데 지난 시간동안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합칠 마음이 전혀 없다. 이혼하는 방법은?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내가 일하면서 번 수입을 아내가 모두 관리해왔다. 그런데 막상 내가 퇴직하고 나니 아내가 나를 무시하였고 시댁에서 받은 게 없다며 더욱 우습게 보았다. 형제들 모임에도 못 나가게 했고, 혼자 계신 아버지도 뵈러 가지 않았다. 밥도 차려 주지 않았고, 지인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나를 모욕하였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하였더니 이혼도 싫고 재산도 나눠 주지 싫다고 하였다.

남녀 모두 '성격차이' 주장하는 이들 많고 그 비율도 증가해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고 2021년에 비해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여성 13.3%→14.3%, 남성 17.6%→17.8%). 과거에는 외도나 가출, 폭행과 같이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녀의 수가 줄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는 기간이 단축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커지고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다소 완화되는 등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성격차이에 따른 갈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과거에 비해 좀더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배우자의 '정신병', '중독증' 주장하는 이들 많아져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남녀 모두 '정신병'(여성 1.4%→1.5%, 남성 1.0%→1.4%)과 '중독증'(여성 0.0%→0.1%, 남성 0.0%→0.2%)의 비율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배우자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등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남성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후 겪게 된 우울증, 여성은 남편이 퇴직 후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 겪게 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실제 상담을 통해 보면,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출산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갑자기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불안과 우울을 겪고 목표를 상실해 쇼핑이나 게임 등에 중독되어 경제적 문제까지 야기시킬 때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져 대화마저 끊길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의처증, 의부증'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의처(부)증'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1.3%→2.1%, 남성 0.7%→1.8%). 상담을 통해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할 때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담자들은 배우자의 잘못된 관심의 표현인 의심이 망상으로 이어지고 배우자의 의도대로 자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 폭언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 의처증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남편은 내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얘기만 해도 누구를 만나고 왔냐며 트집을 잡곤 하였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내 속옷을 들고 나와 나를 몰아

세웠다. 이제껏 나는 단 한 번도 외도를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니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온 후 문을 잠갔다. 자고 있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댄 후 나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남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싫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혼하고 싶다.

가져가곤 한다.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 견디다 못해 내가 나갔다가 한참 만에 집에 들어갔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힘이 든다. 이제는 나도 지쳐서 그냥 돈도 다 포기하고 그냥 이혼만 했으면 한다.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 아내를 마주하기 싫은데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 의무증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남성)

아내가 수시로 나에게 폭언을 하고 의심을 해댄다. 나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외도를 한 적도 없다. 아내는 내게 핸드폰 비번을 풀라고 강요하고 내 폰을 강제로

남녀 모두 결혼조건속임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 많아져

남녀 모두 2021년에 비해 6호사유 중 ‘결혼조건속임’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0.1%→0.6%, 남성 0.2%→1.8%). 내담자들은 상대방이 학력, 경제력, 가정환경, 결혼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21년 → 2022년)

여성			남성		
사유	2021년(%)	2022년(%)	사유	2021년(%)	2022년(%)
결혼조건속임	0.1	0.6	불신	0.5	1.2
경제갈등	9.6	11.2	결혼조건속임	0.2	1.8
빚	2.9	4.4	빚	0.5	2.0
도박	1.3	2.8	도박	-	0.2
전과/복역	0.4	1.0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1.5	2.9
성격차이	13.3	14.3	성격차이	17.6	17.8
정신병	1.4	1.5	성적갈등	0.3	0.4
의처증	1.3	2.1	신체적 질병	-	0.4
폭언	4.9	6.1	정신병	1.0	1.4
자녀학대	0.3	1.1	의부증	0.7	1.8
기물파손	-	0.3	무시/모욕	0.2	1.4
잡은외박	-	0.3	대화단절	0.3	0.8
애정상실	0.2	0.5	배우자의 이혼강요	8.5	9.2
시가와의 갈등	0.9	1.0	중독증	-	0.2
중독증	-	0.1	자녀양육갈등	0.2	0.8
성격파탄	-	0.1			
게임중독	-	0.2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경력, 질병 등 다양한 사항들을 속였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속았던 조건보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상대자 선택 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사랑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결혼관에서 야기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노년 이혼상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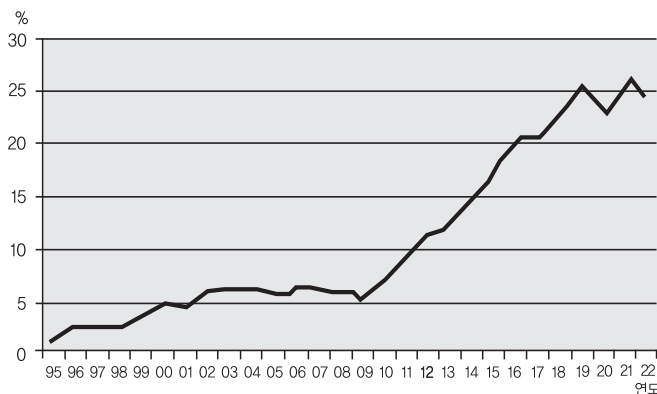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년 전인 2002년에는 여성 5.8%, 남성 11.6%, 10년 전인 2012년에는 여성 11.4%, 남성 21.0%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4.3%, 남성 50.1%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2.1배, 남성은 2.4배,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2배, 남성은 4.3배 증가하였다.

2022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768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518명, 70대는 221명, 80대 이상은 29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428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267명, 70대는 133명, 80대 이상은 28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88세, 여성 91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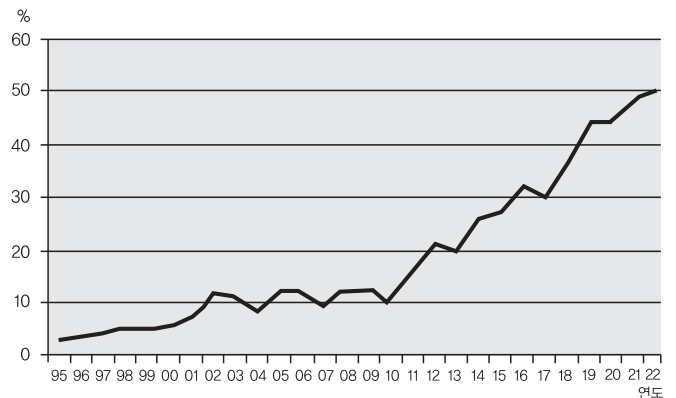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성	남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2019년	870명(25.3%)	586명(43.5%)
2020년	728명(22.3%)	426명(43.5%)
2021년	894명(25.7%)	544명(47.7%)
2022년	768명(24.3%)	428명(50.1%)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노년 여성,

젊어서 폭행하던 남편, 나이 들어서도 안 고쳐
재산 없는 엄마, 자녀들로부터도 외면 당해
이제는 내 몫 받아 마음대로 살고 싶어

노년 남성,

나 떠난 아내 더 이상은 붙들고 있을 이유 없어
평생 벌어 먹었는데 돈 못 벌자 외면 당해
무거웠던 어깨의 짐, 이제라도 내려놓고 싶어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폭언, 성격차이 순), 2호(남편의 가출)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생활무능력, 장기별거, 경제갈등·성격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1호(남편의 외도)·2호(남편의 가출) 순이었다.

60대와 70대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을 가장 많이 꼽아 고령층에서도 여전히 남편의 가정폭력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이 혼인 초부터 계속되어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받아왔으나 자녀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이혼을 망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재산분할에 따른 경제적 자립, 인식 변화 등 그동안 이혼을 망설이게 했던 사안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경우에는 남은 인생을 좀더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80대 이상 여성은 6호사유(기타-생활무능력, 장기별거, 경제갈등·성격차이 순)를 1순위로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생활무능력이 가장 많았다. 고령층에서도 생활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도 두 번째로 가정폭력을 문제 삼아 60대, 70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편 폭력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60대, 70대, 80대 모두 6호(기타사유),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다만, 기타사유인 6호사유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60대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 순, 70대는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성격차이 순, 80대는 경제갈등, 성격차이, 장기별거 순).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6호사유(기타)를 1순위로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의 비율이 높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7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성격차이 순)
	6호(기타-장기별거, 폭언, 성격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80대 이상	6호(기타-생활무능력, 장기별거, 경제갈등·성격차이 순)	6호(기타-경제갈등, 성격차이, 장기별거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았다. 또한, 이들 모두 2호사유(아내의 가출)를 2순위로 제시하여 별거 및 아내의 가출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노년층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별거나 아내의 가출 전에 다양한 사유들로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별거 초기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으나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3순위로 3호사유(아내로부터의 부당 대우)를 제시해 남성 고령층에서도 아내의 부당대우가 혼인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무시, 모욕의 정도를 넘어서 실제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경제력이 있을 때에는 가장으로서 대접을 받았으나 퇴직 후에는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모욕을 당해 견디기 어렵다며 상담소를 찾아왔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과 재혼하였다. 남편은 원래 알콜중독 증세가 심했는데 그나마 나를 만나면서부터 조금 나아졌다. 그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술독에 빠졌고 지난 번에는 나를 폭행하더니 칼까지 들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어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상담명령도 받았다. 그런데도 칼을 들고 내 목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하니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렵다. 빈 손으로 나가는 억울한데 재산도 별로 없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우리는 평생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롭고 부동산도 많다. 하지만 아내는 돈을 쥐고만 있고 전혀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서 젊었을 때부터 재산을 아내명의로 해두었더니 아내는 모두 자기가 모은 돈이고 아이

들도 모두 자기가 키웠다고 주장한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말도 안하고 밥도 따로 해먹은 지 6개월이 지났다. 아이들도 전부 다 엄마 편만 든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 폭언과 폭력 때문에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남편은 평생 동안 제대로 내게 돈을 준 적도 없다. 일해서 항상 다 가졌고, 내가 안 해 본 일 없이 다해 돈을 모았다. 집도 내가 마련한 돈으로 샀는데 남편이 자기가 세대주라며 자기 앞으로 해버렸다. 남편이 돈을 쥐고 있으니 자녀들도 모두 남편 편만 든다. 이혼하고 남편 명의로 된 집 전체를 내가 다 가져오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나는 한 달에 연금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는다. 그 중 절반을 아내에게 준다. 그런데도 아내는 내게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집을 사주었는데 이혼 후 손자까지 데리고 우리집에 와서 산다. 그리고 다른 아들도 미혼인 상태로 같이 살고 있다. 매일이 지옥 같다. 모두들 내보냈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다. 너무 힘이 들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안해 준다고 한다. 이혼이 되든 안 되든 이혼 소장이라도 내보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평생 돈을 벌어서 내게 준 적이 없다. 지금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 혼자서만 돈을 쓴다. 과거에 외도와 폭행도 심했다. 나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 어차피 젊어서도 나 혼자 벌여 자녀들을 모두 양육해왔다. 과거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애들 때문에 내가 망설였고, 이제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젊어서 재혼으로 만났다. 매월 17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고, 얼마 전까지도 건물 관리소장을 하며 돈을 더 벌었다. 상대는 초반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조금 벌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벌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사건건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자신을 만나 살면서 이것도 안하느냐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같이 살고 싶지가 않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기타 면접상담 분석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 건수 늘어 면접교섭 거부나 배제에 대한 문의도 많아

2021년에 비해 면접교섭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0.5%→0.8%).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의 여러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자녀와의 만남을 인정하는 권리이다. 상담을 통해 보면, 이혼 후 양육친의 비협조로 자녀를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측에서는 이혼 전 폭력 등 문제가 있었던 경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고, 양육친이나 자녀가 만남을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 시기를 늦추거나 배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왔다.

파산 상담 및 개인회생 건수 늘어

본 상담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 종사자 및 노숙

인들을 대상으로 파산 면책 교육 및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이혼 등 가사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내담자들 중 과중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파산 상담 건수는 2021년 641건에서 2022년 728건으로 증가하였고 개인회생 역시 2021년 14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2022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는 총 138건의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 파산 상담사례 (내담자 50대 남성)

8년 전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 채무를 지게 되었다. 부족한 사업자금과 생활비는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해 충당하였다. 아직 폐업은 하지 못했고, 소득이 거의 없어 실제로 일을 그만 둔 시기는 2020년경이다. 나는 오래 전 이혼하였고 자녀는 한 명이 있으나 연락단절상태이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며 작년부터 희망의집노숙인시설 무상 거주 중이다. 파산신청하는 방법은?

● 파산 상담사례 (내담자 60대 여성)

2009년경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원을 빌리고, OO카드에서 1,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었고, 결국 2016년경 폐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채무를 빌려 외류사업을 하였지만 이 또한 잘 되지 않아 채무만 짊어진 채 폐업하였다. 폐업 후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못하여, 당시 가지고 있던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빚을 변제해봤지만 아직까지 잔존채무가 많아 생활이 매우 어렵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은?

유언 및 상속에 대한 상담도 큰 비중 차지해

전체 면접상담 중 유언·상속에 대한 상담이 8.0%를 차지하였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자가 남긴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 분배보다는 빚, 즉 소극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

을 하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제도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망자가 과도한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상속인들은 망자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기간, 순위 및 절차, 보정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왔다.

김진영 상담위원

2022년 면접상담 사건내용별 분석표

사 건 내 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17,521건 (93.8%)	남녀관계	28	0.3	49	0.6	77	0.4
	파 혼	3	0.0	2	0.0	5	0.0
	부부갈등	1,946	18.9	3,601	43.1	5,547	29.7
	이 혼	3,162	30.7	854	10.2	4,016	21.5
	사실혼해소	58	0.6	13	0.2	71	0.4
	위자료·재산분할	213	2.1	81	1.0	294	1.6
	친권·양육권	217	2.1	88	1.1	305	1.6
	양육비	614	6.0	139	1.7	753	4.0
	면접교섭권	94	0.9	55	0.7	149	0.8
	인 지	181	1.8	23	0.3	204	1.1
	친생부인	34	0.3	30	0.4	64	0.3
	친생자관계존부	231	2.2	151	1.8	382	2.0
	입양	39	0.4	66	0.8	105	0.6
	파양	19	0.2	12	0.1	31	0.2
	친양자	12	0.1	26	0.3	38	0.2
	혼인무효·취소	16	0.2	20	0.2	36	0.2
	이혼무효·취소	7	0.1	2	0.0	9	0.0
	부양관계	33	0.3	28	0.3	61	0.3
	유언·상속	834	8.1	663	7.9	1,497	8.0
	가족관계등록부	232	2.2	252	3.0	484	2.6
	성변경	111	1.1	46	0.6	157	0.8
	개명	95	0.9	48	0.6	143	0.8
	미성년후견	193	1.9	31	0.4	224	1.2
	성년후견	395	3.8	312	3.7	707	3.8
	가사절차	245	2.4	204	2.4	449	2.4
	기타	740	7.2	973	11.6	1,713	9.2
민 사 1,012건 (5.4%)	임대차	11	0.1	2	0.0	13	0.1
	부동산	22	0.2	14	0.2	36	0.2
	채권·채무	71	0.7	22	0.3	93	0.5
	파산	262	2.5	466	5.6	728	3.9
	개인회생	6	0.1	26	0.3	32	0.2
	민사절차	13	0.1	10	0.1	23	0.1
	민사기타	74	0.7	13	0.2	87	0.5
형 사 141건 (0.8%)	혼인빙자간음	28	0.3	7	0.1	35	0.2
	간 통	-	-	-	-	-	-
	성폭행	4	0.0	-	-	4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10	0.1	8	0.1	18	0.1
	형사기타	62	0.6	22	0.3	84	0.4
합 계		10,315	100.0	8,359	100.0	18,674	99.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영어 법률상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상담도 늘고 있어

본소에서는 2009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영어상담은 본소 영어상담 자원봉사단에 가입한 변호사(면접 및 전화상담)와 본소 상담위원(인터넷상담)이 진행한다. 2022년에 영어로 진행한 상담은 총 28건이었는데, 면접상담이 3건, 인터넷상담이 25건으로 인터넷상담이 더 많았다.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터넷상담의 수요가 더 많았

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진행한 영어상담의 특징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담이 많았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계속 관찰되는 점이다. 상담 내용은 이혼 - 부부갈등 · 양육친권 - 양육비의 순으로 많았다. 2022년에 진행된 영어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일	신청인		상대방		사건분류
		성별	국적	성별	국적	
1	1. 4.	여	베네수엘라	남	한국	가사/양육친권
2	1. 11.	미상	미상	-	-	가사/양육친권
3	2. 4.	미상	미상	미상	미상	가사/이혼/6호/성격차이
4	2. 15.	여	프랑스	남	한국	가사/기타
5	2. 15.	여	미상	남	한국	가사/이혼/3호
6	2. 28.	여	모로코	남	한국	가사/이혼/3호
7	3. 14.	여	미상	남	미상	가사/이혼/3호
8	5. 6.	여	미상	남	한국	가사/이혼/3호
9	5. 30.	여	스페인	남	한국	가사/양육친권
10	6. 17.	여	스페인	남	한국	가사/이혼/3호
11	6. 17.	여	미국	남	한국	가사/이혼/6호/성격차이
12	7. 18.	남	미국	여	한국	형사/기타(면접)
13	7. 19.	여	미상	-	-	가사/유언·상속
14	8. 19.	여	필리핀	남	한국	가사/양육비
15	8. 22.	여	한국	남	미국	가사/인지(면접)
16	8. 29.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이혼/6호(면접)
17	9. 30.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기타
18	10. 5.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기타
19	10. 6.	남	미상	-	-	민사/손해배상
20	10. 26.	여	미상	남	한국	가사/양육비
21	11. 2.	남	미상	여	한국	가사/성년후견
22	11. 2.	남	미상	여	한국	가사/성년후견
23	11. 10.	여	미상	남	미상	민사/손해배상
24	11. 14.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부부갈등/3호
25	11. 18.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부부갈등/3호
26	11. 21.	남	미상	여	한국	가사/부부갈등/3호
27	11. 23.	남	프랑스	-	-	민사/기타
28	12. 20.	여	프랑스	-	-	민사/기타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권지연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소송구조 분석 개인파산 및 면책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및 면책사건 앞으로도 증가 예상
- 신청인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
- 신청인 중 84.8%가 월수입 100만 원 미만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경영파탄, 사기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순
- 파산 및 면책사건 승소율 100%에 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 문제에 주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소의 신용회복 관련 소송구조는 본소를 방문한 내담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으로부터 연계된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을 포괄하여 진행하고 있다. 채무는 흔히 채무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계좌가 출금정지 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신용불량상태에서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 후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이다.

파산결정 후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그러나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 ①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②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③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의 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을 받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유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으로 소멸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복권(復權)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 남게 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3년 동안 소득의 일정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즉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한편 가정해체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제도를 통한 사회로의 복귀와 가정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소의 파산 및 면책사건 법률구조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138건의 신용회복 관련 법률구조를 하였다.¹⁾ 이 중 파산 및 면책사건이 136건, 개인회생사건이 2건이었다.²⁾ 이하에서는 상담 내용과 신청서, 법원 결정문 등을 토대로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 상황,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그리고 사건의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1.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

- 남성의 비율이 약 1.6배 더 높아
- 60대, 50대, 70대 순. 10명 중 8명 이상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

(1) 성별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84명(60.9%), 여성이 54명(39.1%)으로 남성의 비율이 약 1.6배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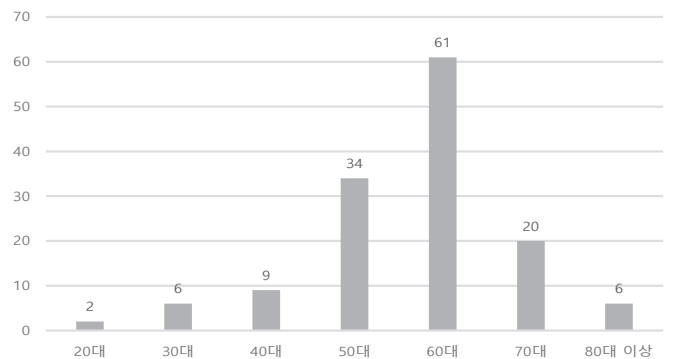
〈표-1 신청인의 성별〉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빈도(명)	54	84	138
비율(%)	39.1	60.9	100

(2) 연령

신청인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61명(44.3%)으로 가장 많아 노년층에서 파산 및 면책 사건 신청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50대 34명, 70대 20명, 40대 9명, 30대와 80대 이상 각 6명, 20대 2명³⁾의 순이었다. 신청인의 10명 중 8명 이상(87.7%)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2021년 50대 이상의 파산면책신청인(84.8%, 106명)보다 2.9%p 증가하였다.⁴⁾ 생애주기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시기에 빚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50대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그림-1 신청인의 연령〕



1) 〈연도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산·면책소송구조 건수〉

연도	2012	2014	2016	2017	2020	2021	2022
빈도(건)	90	97	149	154	152	125	138

2) 〈2022년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사건분류〉

구분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합계
빈도(명)	136	2	138
비율(%)	98.6	1.4	100

3) ① 신청인(남성, 20대, 고졸, 월수입 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은 지인의 강요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으나 지인이 합부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인의 강요로 청년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채무가 증대되었다. 그렇게 발생한 사기피해 금액은 2,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채권자는 7명이었다.

② 신청인(여성, 20대, 고졸, 월수입 84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만 본인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느껴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일로 공황장애까지 앓으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고, 총 채무는 5,100만 원(채권자 6명)이었다.

라서 노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신용회복 및 사회복지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소의 파산 및 면책 사건 법률구조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2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2	1.4
30대	6	4.3
40대	9	6.6
50대	34	24.6
60대	61	44.3
70대	20	14.5
80대 이상	6	4.3
합계	138	100

(3) 학력

신청인의 교육 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58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29명, 초등학교 졸업 28명, 초대 졸업 이상인 경우가 20명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청인이 78명(56.5%)에 달했다.

〈표-3 신청인의 학력〉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합계
빈도(명)	3	28	29	58	2	18	138
비율(%)	2.1	20.3	21.0	42.1	1.4	13.0	100

2. 신청인의 생활상황 분석

- 대부분 무직, 그 외 단순노무직 등
- 1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84.8%
- 대부분 임대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 1,0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한 상황

(1) 직업

신청인 대부분은 신청 당시 무직(125명, 9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9명, 6.5%)하고 있었다. 소송구조사례에서 보면 신청인들은 채무로 인해 적절한 일터를 찾기 어려워 자신의 전문적 기술이나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4 신청인의 직업〉

직업	빈도(명)	비율(%)
회사원	0	0.0
공공근로	3	2.2
일용직	5	3.6
단순노무	1	0.7
종교인	1	0.7
무직	125	90.6
기타	3	2.2
합계	1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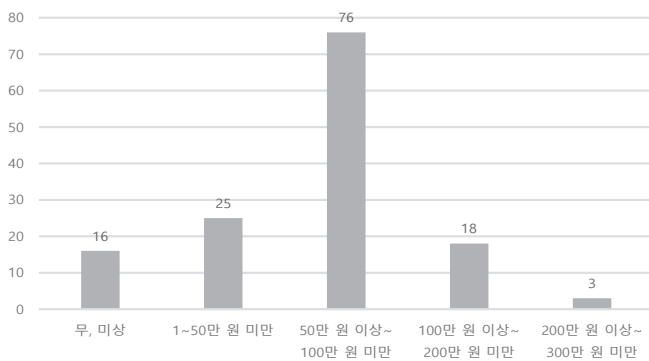
4) 〈2021년 본소 파산면책 등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1	0.8
30대	3	2.4
40대	15	12.0
50대	34	27.2
60대	54	43.2
70대	16	12.8
80대 이상	2	1.6
합계	125	100

(2) 월수입

신청인의 월수입을 보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이 7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소득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인 경우로 41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117명(84.8%)에 달하여, 대부분 신청인의 경제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다. 월수입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명이 있었다.⁵⁾

[그림-2 신청인의 월수입]



〈표-5 신청인의 월수입〉

월수입	빈도(명)	비율(%)
무, 미상	16	11.6
1~50만 원 미만	25	18.1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76	55.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8	13.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	2.2
합계	138	100

(3) 주거형태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신청인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113명, 81.9%)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 친족 소유 주택(8명, 5.8%)이나 친족 이외 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7명, 5.1%)와 쉼터나 쪽방(9명, 6.5%)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표-6 신청인의 주거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113	81.9
친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8	5.8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 무상 거주	7	5.1
쉼터 거주	3	2.2
쪽방 거주	6	4.3
기타	1	0.7
합계	138	100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13명의 신청인들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보면, 임차보증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52명(46%),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22명(19.4%) 등으로 주거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임대주택 보증금	빈도(명)	비율(%)
없음	12	10.6
100만 원 미만	10	8.8
100만 이상 ~ 300만 원 미만	18	15.9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18	15.9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6	14.2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17	15
2,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10	8.9
5,000만 원 이상	12	10.7
합계	113	100

(4) 신청인의 과거 경력

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보면, 회사원이 44명(31.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32명(23.2%)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

- 5) ① 남성(60대, 중졸), 무직,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퇴직금), 차상위계층, 채무액: 62,268,898원, 채무증대 경위: 사업의 경영 파탄
 ② 남성(60대, 전문대 중퇴), 무직,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173,818,222원, 채무증대경위: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 파탄
 ③ 여성(70대, 초졸), 무직, 월수입 200~300만 원 미만(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채무액: 21,291,120원, 채무증대경위: 명의도용피해

무원이나 기술직도 있어 파산 및 면책 문제는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표-8 신청인의 과거 경력〉

직업	빈도(명)	비율(%)
회사원	44	31.9
공공근로	4	2.9
일용직	26	18.8
단순노무	14	10.2
자영업	32	23.2
경찰	1	0.7
운전	2	1.4
세일즈	1	0.7
기술직	3	2.2
무직	3	2.2
기타	8	5.8
합계	1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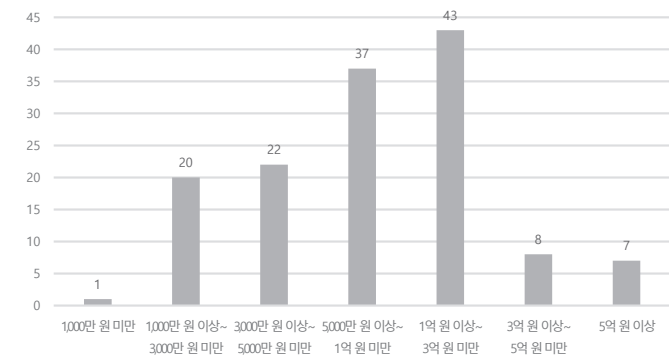
3.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분석

- 신청인 138명의 총 채무액은 228억 원, 신청인 중 최저 채무액은 3백 7십만 원, 최고 채무액은 22억 8천만 원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경영파탄, 사기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순

가. 채무액 분석

(1) 신청인의 채무액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43명(31.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37명이 있었다. 채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21명이 있었다. 이 중 1,000만 원 미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신청인도 1명이 있었다.⁶⁾ 이처럼 소액의 채무인 경우에도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현재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림-3 신청인의 채무액〕



〈표-9 신청인의 채무액〉

채무액	빈도(명)	비율(%)
1,000만 원 미만	1	0.7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20	14.5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22	15.9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7	26.8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43	31.2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8	5.8
5억 원 이상	7	5.1
합계	138	100

(2) 채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21명의 신청인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13명(61.9%), 50대 4명, 30대 2명, 40대 1명으로, 소액의 채무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령자일수록 많았다.

〈표-10 채무 3,000만 원 미만의 신청인〉

(단위 : 명)

성별	남성(명)	여성(명)	합계 (비율 %)
연령			
20대	1	0	1 (4.8)
30대	1	1	2 (9.5)
40대	0	1	1 (4.8)
50대	0	4	4 (19.0)
60대	5	1	6 (28.6)
70대	3	3	6 (28.6)
80대 이상	1	0	1 (4.7)
합계 (비율 %)	11 (52.4%)	10 (47.6%)	21 (100)

6) 남성(80대, 대졸), 무직, 월수입 50~100만 원 미만(연금소득과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3,718,982원, 채무증대경위: 명의 도용피해

- 채무액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사례

● 사례 1. (남성, 70대)

신청인은 오랫동안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1개를 사용하였는데, 체납된 신용카드대금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2017년경에서야 법원에서 보내온 결정문을 보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본인의 능력 범위 안이라면 변제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 이자가 많이 쌓인 상태라 변제가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해 채무가 증대되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 사례 2. (남성, 60대)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후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하였으나 결국엔 채무만 더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85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례 3. (여성, 50대)

신청인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가 발생해 이혼하였다. 이혼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용근로를 전전하였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런 와중에도 신청인은 미래를 꿈꾸며 학자금대출을 받아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이후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이혼녀라는 편견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고,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 사례 4. (여성, 50대)

신청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였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다. 이후 친모가 중풍과 치매로 쓰러지면서 신청인이 간병해야 하였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신청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 사례 5. (여성, 40대)

신청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주폭이 심한 친부의 강요로 중매결혼을 하였고, 전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 전배우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신청인의 의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신청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불안증세가 커진 신청인은 가출하여 찜질방에서 생활하였고,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하면서 길거리 노숙까지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주변의 도움으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신청인 138명의 총 채무액은 총 22,790,579,542원에 달하였다. 최저 채무액은 3,718,982원이고, 최고 채무액은 2,277,354,497원이었다.⁷⁾

〈표-11 평균 채무액 및 평균 채권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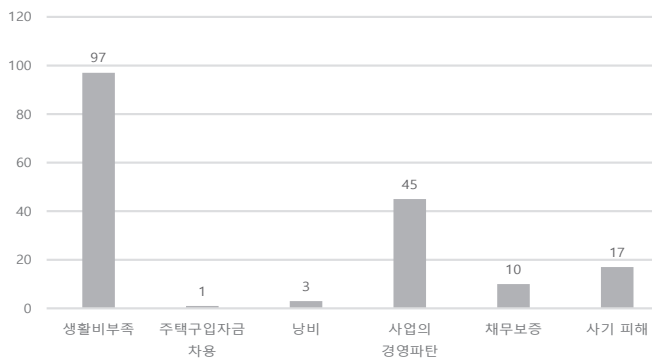
채무 총액	22,790,579,542원
최고 채무액	2,277,354,497원
최저 채무액	3,718,982원
최다 채권자 수	18명
1인당 평균 채무액	165,149,127원
평균 채권자 수	6명

7) 남성(60대, 대중퇴), 무직, 100~200만 원 미만(연금소득과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2,277,354,497원, 채무증대경위: 사업의 경영파탄, 타인의 채무 보증, 사기피해

나. 채무증대경위 분석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원인이 된 채무의 발생 이유인 채무 증대경위는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채무가 증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신청서에는 채무증대경위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림-4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표-12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채무증대경위	빈도(명)	비율(%)
생활비부족	97	53.6
주택구입자금 차용	1	0.6
낭비	3	1.7
사업의 경영파탄	45	24.9
채무보증	10	5.5
사기 피해	17	9.3
기타	8	4.4
합계	181	100

(1) 생활비 부족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97명, 53.6%). 상담내용을 통해 보면, 채무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할부금을 내는 방법, 즉 소위 카드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2) 사업의 경영파탄

두 번째로는 사업의 경영파탄으로 인한 경우였다(45명, 24.9%).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되는 채무의 경우 통상 그 채무 액수가 큰 경우가 많아 신청인들이 변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3) 사기 피해

세 번째 사유는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였다(17명, 9.3%). 사기 피해의 경우, 신청인들이 주변의 권유나 꼬임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몇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고 빚을 지게 된 경우처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해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된 피해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이들로부터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자들이 대포차, 대포폰 등을 구입하여 범죄 등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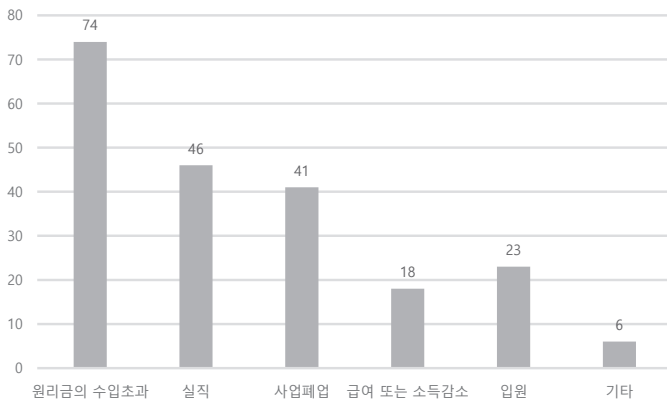
(4) 채무보증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서 본인의 채무가 증대한 경우도 5.5%(10명)에 달하였다.

다. 지급불능경위 분석

지급불능경위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이다.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불능경위 또한 복수 응답이 가능하며,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그림-5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표-13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74	35.6
실직	46	22.1
사업폐업	41	19.7
급여 또는 소득감소	18	8.6
임원	23	11.1
기타	6	2.9
합계	208	100

(1) 원리금의 수입초과

신청인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74명, 35.6%)였다. 채무자들은 본인의 수입으로는 원금의 상환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채무자들은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가 어려워지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1금융권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나 이 경우 고율의 이자로 인해 처음 대

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실직

지급불능경위 중 두 번째는 실직(46명, 22.1%)이었다.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짐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3) 사업폐업

지급불능경위 중 세 번째는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41명, 19.7%), 2021년보다 2.5%p 증가하였다(2021년 17.2%).⁸⁾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입 감소가 폐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질병

신청인들 중 23명(11.1%)은 질병 문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무와 가족간 불화,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지병이나 부상 및 신체적 발병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4. 사건결과 분석

본 상담소가 2022년도 진행한 사건(138건) 중 90건

8) <2021년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76	37.5
실직	39	19.2
사업폐업	35	17.2
임원	24	11.8
급여 또는 소득감소	23	11.3
기타	6	3.0
합계	203	100

(65.2%)이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사건은 48건(34.8%)이다. 종결된 사건은 모두 파산 및 면책사건으로 승소율은 100%였다.

〈표-14 사건결과〉

	빈도(건)	비율(%)	승소율 100.0(%)**		
종결	90	65.2	종결사건 90(건)		
진행중	48	34.8	승소	기각	취하
계	138	100.0	90	0	0

** 승소율 : (승소)/(승소+기각)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소에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신청한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과 사업의 경영 파탄을 이유로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의 감소, 실직, 또는 폐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들이었다. 신청인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경제적 안정이 절실한 노년층에서의 파산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신청인 중 84.8%가 부양가족 수 대비 법정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금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신청인 중 90.6%가 현재 무직인 상태인 점과 신청인 중 65.4%가 임대주택 보증금 1,000만 원 미만의 본인 혹은 타인 명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특징이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피치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위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하는데 꼭 필요한 신용회복 제도이다. 한편 2022년 상담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5개월이 소요되었다.⁹⁾ 중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단축된 셈으로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으로 각 개인 및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소에서는 인권 보호와 가정의 회복 그리고 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해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예정이다.

전규선 상담위원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다문화가정 영어상담을 해 주신

배선경 변호사님

후원 고맙습니다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진곤, 정재은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정난 님

9) 2022년 파산면책 소요기간

① 최단기간: 1개월(여성, 60대, 초졸, 월수입 5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354,832,737원, 채무증대경위: 생활비 부족)

② 최장기간: 9개월(남성, 70대, 대졸, 월수입 48만 원, 채무액 634,705,313원, 채무증대경위: 타인의 채무 보증)

폭력 사실 부끄럽고,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려 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의견 일치해

2020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교육강좌 2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1. 1. 15. ~ 2021. 7. 1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9년이 경과 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8세)가 있고 맞벌이를 한다.

행위자는 2020년 8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
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꺾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폭
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결혼 기간 중 가사를 많이 하였는데 2020년 2
월부터 허리디스크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가사를 돕지
못한 점, 부부가 다룰 때 피해자가 카드대출로 혼수를 마련
한 것을 행위자가 거론한 것, 생활비에 대한 이견, 각자의
소득에 대해 공유하지 않는 점 등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사건 이후 2020년 10월 친정으로 갔던 피해자가 석 달
후 집으로 돌아왔다. 8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한 상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위자는 피
해자와 의논 끝에 한방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에 의하면 같이 방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위자가 불편
하다고 하면서 아이 방에서 자기 시작하더니 이후 거의 아
이 방에서 자고 아이가 엄마와 안방에서 잠을 잔다고 하였
다. 이에 대해 행위자는 자신은 더위를 타고, 피해자는 추위
를 타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전과 달리 행위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
으려고 조심하여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갈등 원인이었던
경제문제에 대하여 행위자는 피해자가 버는 소득을 굳이
확인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이 감당하던 부분은 이전과 같
이 감당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으며, 과거사를 새삼 문제 삼
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행위자가 게임에 몰두하
고, 소득을 피해자와 공유하지 않는 등 신뢰 문제를 지적하
면서 개선되기를 바랐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이전보다 화를 덜 내고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다고 변화를 보고하고, 사건 당시 부
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5~6점이라
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10
점 만점에 5점, 현재는 6점이라고 평가하고, 부부 사이에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 행위자
는 피해자와 대화를 통하여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행위자는 폭력을 하여 경찰서와 법원에 가
고 상담을 받게 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15

● 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Q 문 61 |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

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이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Q 문 62 |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는지요?

A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므879 판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는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을 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과 실무수습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요약하여 싣는다.

한 승 연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 달 동안 전화상담, 교육 프로그램, 법원 및 상담소에서의 상담 참관, 교원직무연수 등의 연수를 받으며 배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루는 가사 사건의 종류와 법률구조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배웠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과 상담소에서의 상담참관을 통해 이혼과 상속, 파산 등의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법을 다루는 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번민하는 이웃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보며 법이 지향해야 할 태도와 평등의 가치에 대하여 고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수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상담소의 업무를 알게 되고 법률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법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봉사의 즐거움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지도해주신 소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허 수 완

동국대학교 법학과

주변에서 먼저 실습을 진행했던 학우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추천하여 실습신청을 했지만, 생각은 모두 막연했고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연수 첫날은 모든 것이 어색했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연수를 받으며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혼·가정폭력·친권·양육·상속 등 가정 내 법적인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고 상담 참관을 통해서 더 많은 법률적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현 중 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연수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실습기간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또한 4년 동안 학교에서 법학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법학지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었고, 비록 업무가 가사사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몸소 느끼고 싶었다.

연수를 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담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더라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웠던 법학적인 지식들이 실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보람찼기에, 주변 학우들에게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학업이 아닌 출퇴근을 하면서 쉽지 않았지만, 실습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보람차고, 실습 덕분에 갖춰진 루틴이 향후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상담소에 일하는 모든 선생님께서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매사에 진심으로 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서 윤

동국대학교 법학과

1월 한 달간 상담소에서 매일 몇 십 건씩 다양한 가정문제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안에 해당하는 다양한 책과 판례들을 공부하며 유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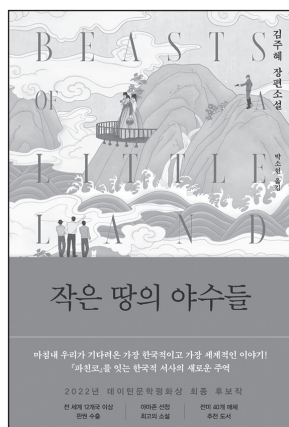
한 법률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성년후견인보고서 작성이나 판결문 정리,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하며 많은 가정법률 문제를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안마다의 특징과 판례의 최신동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정, 판결 등 여러 종류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결문이 작성되는 형식과 기본적인 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통해서는 가정폭력예방, 소통 등 유익한 정보를 같이 학습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업무처리 절차를 실습해 볼 수도 있었다. 상담소에는 정말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진 내담자분들이 매일 오시거나 연락을 주셨다. 도움이 정말 절실한 분들도 매우 많았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책이나 판례들을 찾아보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며 한분 한분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학생으로서 드릴 수 있는 도움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연수를 통해 앞으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가 되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번 실습은 대학생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는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면뿐 아니라 인간적 면에서도 엄청난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좋은 경험을 또 쌓아가고 싶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많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과 법률구조, 조정 관련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며, 더 많은 상담을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또한 상담을 마치고 나면 관련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사소한 질문까지도 다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 소 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그동안 저의 관심 분야는 성년후견 업무로 다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다양한 가사 사건들을 접하며 관심사도 넓히고, 동시에 가족법 및 가사소송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걸맞게 실무수습하는 2주 동안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가사사건을 접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어떤 고민과 결심을 거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변호사님들과 상담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조언을 귀담아듣고 무엇이 내담자에게 가장 최선의 방안일지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보니, 학교에서 사례 문제로 사안을 풀이할 때와 느껴지는 책임감의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법학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토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이미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의 반복이었기에, 그 외의 것들은 고려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내담자나 의뢰인이 원하는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 전에 내담자에게 진정으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즉 변호사로서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내담자의 삶과 가정의 회복에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 중 하나이며,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과제들도 주셔서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가족법 및 관련법들을 찾아보고 계속 고민해본 것이 해당 법 전반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족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이라 과제 수행에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스스로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 기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윤 내 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상담소에서 상담을 참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2주 동안 배운 것들을 떠올려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법조문과 판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야가 한정되기 쉬운데, 이번 실무수습을 기회로 좀 더 현실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참관하던 때에 한 내담자분의 소장 작성을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장이었고, 구비해 오신 서류들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는 것을 그저 보조해드렸을 뿐인데도 내담자분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상담 실습을 지도해주셨던 선생님께서 가정법률상담소의 장점으로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해주셨던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보낸 2주는 정말로 뜻깊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장편소설 박소현 옮김

다산북스, 2022(초판 8쇄)



1917년 겨울, 북녘 평안도 깊은 산속 호랑이 사냥꾼과 사냥에 나섰던 일본군들의 만남을 담은 프롤로그, 본격적으로는 1918년 평양에서 기생 견습생이 된 소작농의 10살 된 딸 옥희가 경성을 거쳐 1965년 제주에서 해녀의 삶을 시작하는 에필로그로 막을 내리는 이야기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다.

3.1운동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어느 흑백 사진이 떠올랐다. 어떤 설명에서는 ‘부녀자들의 만세 행진’이라 하는데, 내 기억에는 ‘기생들의 만세 행진’이었고 실제 1919년 당시 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이 각지에서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소설은 1917년 북녘에서 시작하여 1965년 남쪽 끝 제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의 독립 투쟁과 그 격동의 세월 속에 휘말려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호랑이 사냥꾼과 일본군의 인연 그 인연은 대를 이어 인연도 되었다 악연이 되기도 하고 사냥꾼의 아들과 기생의 만남은 평생에 걸쳐 연민과 애정과 슬픔 등으로 변주된다.

서사의 중간에는 당대의 삶을 살다 간 다양한 이들의 모습도 충실하게 묘사된다. 예컨대 당대 조선의 손꼽히는 부자이자 명문가의 후계자이지만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나 평화롭게 전개된 만세운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과정을 경험하며 공산주의와 무장투쟁으로 가게 되는 이명보 그리고 비슷한 계급으로 지극한 현실론자인 김성수의 일생은 비극적인 독립운동가와 시대의 흐름에 운 좋게 편승해 오늘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어떤 이들을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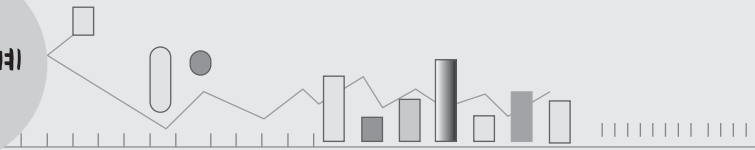
작가 김주혜는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주해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적 서사를 다룬 이 데뷔 소설로 “톨스토이 스타일의 작품”이라는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작가는 “단지 지금으로부터 백 년쯤 전, 여기서 멀리 떨어진 작은 땅에서 살았던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류 전체의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썼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구 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 한국의 역사를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이 책 『작은 땅의 야수들』이나 『파친코』와 같은 작품들의 저자가 재외동포 2세 여성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의 뉴스와 맞물려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고위직 취임을 앞두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게 된 이슈는 모든 대목이 경악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해자인 자녀가 피해자를 두고 제주도 출신이어서 “빨갱이”로 지목했다는 부분은 심지어 슬프기까지 했다. 고작 그 나이에 그 역사가 관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긴 할까 싶은 지경이다. 올해의 3.1운동 기념식 뉴스를 보고 난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책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명보와 남정호의 최후 그리고 김성수 일가의 오늘을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죽여버린 『작은 땅의 야수들』을.

이숙현 편집부장



2023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지난 2월 23일 본소의 2023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조대연, 김명순, 김병후, 박영립, 김상용 이사와 한미영 감사가 참석하였으며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 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기타 안건으로 본소의 인사규정 및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의 심의가 있었고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관련사진 2면)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위한

2023년도 라디오 광고 녹음 진행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본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라디오 광고를 CBS 음악FM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고 있으며,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진행은 베리모먼트사의 최성희 대표와 윤종진 국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에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참여하여 2023년 라디오 광고 녹음을 하였다. 3월 1일부터 CBS 음악FM의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등의 프로그램에서 월 150회 가량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올해는 상담소의 새로운 주력사업인 화상상담을 추가하였다.

상담소 변호사 회의

소송구조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는 본소의 변호사 회의가 지난 2월 22일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김민선, 박솔기 변호사 그리고 상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인사위원회 개최

지난 2월 23일 본소 소장실에서 상담위원 신규채용 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신규채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2월 23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하였는데, 강사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생하는 빈도가 낮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3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학생 교육

본소 교육부는 2월 24일, 28일 양일간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에 지원한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은경 · 박상진 상담위원이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상담소 소개 영상 시청 및 가족법,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앞으로 정해진 시간에 상담소에서 자원봉사 및 법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게 된다. (관련사진 2면)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방학 실무수습 실시

본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

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방학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으며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소이
1학년 윤내경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겨울방학 대학생 현장실습

2023.1.2.-2023.2.28.(이화여대)

- 김안젤라, 임도경

2023.2.1.-2023.2.28.(동국대)

- 김해민, 송유림, 이석민, 이현경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2.8.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마포에란원

- 조은경 상담위원

2.10. 안산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전규선, 천다라,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14일 뉴스토마토와 친생추정조항과 출생신고 문제에 관해 인터뷰하였고, 21일에는 본소를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녹음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다. 16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등 사건 및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1일에는 본소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녹음에 참여하였다.

곽배희 소장, 상담소 홍보 위한 라디오 광고 녹음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2월 21일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라디오 광고의 새로운 멘트를 녹음하였다.

2023년 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594				
법률상담 (3,709)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921	2,675	107	5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711	41	133		

· 인터넷 정보 이용 79,08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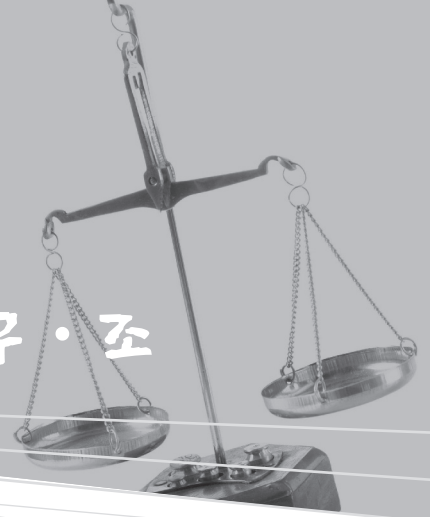
2023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594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709건(80.7%), 화해조정 711건(15.5%), 소장 등 서류작성 41건(0.9%), 소송구조 133건(2.9%)이었다.

법률상담 3,70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1월에 비해 남녀관계(0.3%→0.4%), 부부갈등(5.9%→6.4%), 이혼(17.2%→19.6%), 사실혼해소(0.7%→0.9%), 가사절차(8.4%→9.7%), 가사기타(0.5%→0.7%), 친권·양육권(2.9%→3.2%), 양육비(6.6%→8.0%), 면접교섭권(1.8%

→2.0%), 친생자존부(1.4%→1.6%), 부양(1.1%→1.2%), 가족관계등록부(2.7%→3.1%), 친양자(0.5%→0.6%), 부동산관련(0.1%→0.2%), 채권·채무(0.3%→0.7%), 파산(2.2%→2.4%), 민사절차(0.3%→0.4%), 민사기타(0.6%→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70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21건(24.8%), 전화상담 2,675건(72.1%), 인터넷상담 107건(2.9%), 순회상담 5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수감생활과 심한 의처증,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면접교섭권 배제

법률구조 2022-1-175

담당 : 오지원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권의 배제

내용 : 상대방(의뢰인; 반심판청구인, 여, 40대)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남, 50대)과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과 미성년인 사건본인 2명을 두고 있었으나, 2016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거듭된 마약 등의 범죄와 수감 등으로 사건본인들과 유대관계가 형성될 기회가 없었다. 이혼 후에도 심한 의처증,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쉼터에서 거주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자녀들의 이전한 주소지를 찾아내 보복할 것이 두려워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여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의 주소지를 알아냈고, 편지까지 보냈다. 이에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은 심한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도 청구인과의 면접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 위 면접교섭허가를 기각하고, 나아가 반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의 배제를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1. 18.)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2년 4개월 동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2-1-215

담당 : 김정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14년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7세)을 두었으며, 2017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신청인은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5일에 3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혼 후 피신청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더라도 정해진 양육비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보내어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양육비 9,900,000원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1.)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7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7. △. △.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22. 8.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9,9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사행성 불법도박 사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폭언,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295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1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2022년 2월경 원고를 폭행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상담을 받고 있다. 사건본인 역시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매일 밤 악몽을 꾸는 등 불안증세와 우울증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년여 동안 필리핀에서 사행성 불법도박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 피고가 한국에 온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 명의로 1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0. 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나. 서울시 은평구 000에 대한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원고 명의)을 포함하여,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시행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 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법률구조 2022-1-335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17년 11월경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였고, 당시 사건본인(남, 10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지나치게 화를 자주 내고, 폭언 및 폭행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본인은 전문 상담기관과 소아정신과 등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2. 11. 11.)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3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3월 13일, 3월 27일, 4월 10일, 4월 24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3월 23일	너의 의미
4월 27일	분노는 과학이다.
5월 25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2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7일	공감능력
8월 24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8월, 11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3월 8일	미움 :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진 너, 너를 멀리하고 싶다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4월 12일	우울 : 자꾸 어긋나는 일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5월 10일	열등감 : 나보다 잘난 너, 나 잘난 맛에 살고 싶다	
6월 14일	후회 :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현명하게 살고 싶다	
7월 12일	매사 불만족과 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9일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9월 13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3년 8월, 11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